



우리시대 참스승

창수초등학교 교장 문 천 희

# 優秀兒 教育프로그램 별도 추진해야

“오늘날 교육이 너무 평준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수아교육이 미진한 실정으로 우수한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창수초등학교 문천희(57) 교장은 우수아 중 특히 수학교과 우수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교육을 실시해왔다. 문 교장은 수학을 논리성중시, 다양한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는 과목으로 학창시절 수학을 좋아하고 잘 하는 과목이었고 교사 시절에도 경인초등수학교과연구회 회원으로 참가하는 등 수학교과 지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절 바르며 능력있는 인간 육성에 교육 관심을 갖고 교육계에 입문한 문 교장은 전라남도 진도군 근내북초등학교, 고성중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목포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전라남도 완도군 근외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첫 부임한 후 교향인 진도 근내북초등학교, 명급초, 의동초, 대마초, 오룡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문 교장은 양주시 봉암초등학교, 덕산초, 부천시 소사초등학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9월1일 교장으로 승진하여 부천동초, 부천 부흥초,부안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2004년9월1일 교장으로 승진해 창수초등학교에 부임했다.

문 교장은 피보나치 수열을 예로 들어 수학 과목을 교육한다. 자연에도 어떤 방식이 있나. 피보나치 수열은 1로 시작하고 처음에 똑같은 두 수가 반복되며 두 번째 수부터는 맨 앞자리 단위의 수가 반복된다.(1,2,3,5,8)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 다음에 나타나고 수들이 홀수, 홀수, 짝수로 이어지며 4의 배수 번째에 있는 수들은 3의 배수이며 이웃하는 두 수



창수초등학교 교장 문천희

## 학생 실력 향상 위해 다양한 教育

의 차이들도 같은 규칙의 수열을 이룬다. 술방울(5,8), 식물의 잎사귀, 달팽이, 우리의 몸, 음악 등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다.

덧셈의 경우도 앞 수부터 더하는 경우와 뒤에서부터 더하는 방식이 있다. 누구와 누가 방식이 같은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되고 해결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문 교장은 강조한다.

수업시간에 발문도 중요하다. 아이교육은 20년 간다는 말이 있다. 아이 하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꾸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아이 하나를 바보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조심해서 기를 살려주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문 교장은 우리나라 교실에 가면 아이들 질문이 매우 적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면 질문이 잘 나오는 것은 물론 서슴없이 질문한다.

문 교장은 낙도에서 근무했을 때 만났던 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고 찾아왔을 때 부천동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아 최경원이라는 학생을 지도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화해 전문대를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간다고 연락을 해왔을 때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 제자는 정신박약을 앓고 있었으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 적중했던 것으로 안다.

초등2급 정교사, 초등1급 정교사, 특수교사(정신박약) 자격, 초등교감, 초등교장, 워드3급, 주산단의 자격증을 보유한 문 교장의 취미는 독서와 바둑이며 바둑은 아마 2단이다.

창수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구령대를 신축하고 교실중축과 인라인스케이팅장 신설, 통학버스 운행, 전교실 바다 교체, 학생 1인1컴퓨터 보급, 재배체합장 신설, 불룩담 철거 및 화단조성, 기상대 및 암석원 조성, 도서관 신설 및 도서확보(1만2천권), 영어체험학습장 신설(영글리쉬존), 특기적성 무료운영, 말하면서 공부하는 영어교재 구비, 전학년 동영상 자료 구비, 사철 꽃피는 학교구현, 율타리 장미 심기, 1인1자격증을 확보하도록 교육했다.

창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삼성중학교에 진학한 8명중 반배치고사에서 2,3,4등을 차지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교사 탐구

47

## 삼성중학교 교무부장 이정

“힘들 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난다는 사실이 가장 좋다”며 매일 대지 않고도 교실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삼성중학교 이정(38) 교사를 만났다.

1992년9월1일 파주 광평중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한 이정 교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수유여자중학교, 영훈고등학교, 국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전대학교 대학원(전공 상담심리학)을 졸업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는 교사로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수업을 이끌어왔다.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지만 분명한 선은 있다. 학생들이 넘어오지 못할 선이 있다.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엄마, 친구가 아닌 명명한 교사이기 때문이다. 삼성중학교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이다 보니 80~90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10명이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삼성중학교 교무부장 이정

## 제과·제빵 홈 베이킹의 즐거움·진로선택 도움

### 소규모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예산 확보해야

지치고 있다. 심지어 출근했는데 오전10시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을 때도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 교사는 파주 광평중, 관인중, 의정부여중, 민락중에 이어 삼성중학교에 2003년3월1일 부임하여 특성화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반을 운영하고 있다. 1,2,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탐별 12명으로 구성해 3개월을 가사실에서 운영한다.

제과·제빵반은 학교내 제과·제빵 설비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여 홈 베이킹의 즐거움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여가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과·제빵반 활동을 통해 제빵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여 다양한 쿠키와 빵을 만들 수 있었고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었으며 어렵게 느껴지는 빵 만들기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 교사는 이 프로그램은 중등학생이 대부분 꼭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주의를 산만하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도 스스로 제과를 만들면서 차분함과 자신감이 향상됨을 발견했다고 한다.

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업계 고교 진로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제과·제빵 설비가 갖추어진 가사실은 입체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며 ‘삶의 체험현장’과 같은 TV프로그램 관련 비디오테일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선을 다하는 나, 함께 하는 우리’를 실후론으로 삼아 샌드위치, 버터쿠키, 치즈 스티, 옥수수쿠키, 아몬드 쿠키, 땅콩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낸다.

가정과 수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데 빔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음악출범기 자격증을 보유한 이 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가정과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 교사는 50대가 되면 상담소를 개원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담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상담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졸업식장에서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서 보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소 불안해하며 비웃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불필요한 공문을 제재했으면 하는 바램이 이 교사에게 있다. 교사가 짬을 내서 수업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문처리가 될 때도 있다. 교사는 수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사는 올해는 예산삭감이 많아 소규모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하고 학생들과 함께 부버대버 살고 싶다. 연구활동은 해왔던 것을 잘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노력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희생정신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국제협력 지원단 창단 글로벌 人材育成

## 경기도교육청 10일 창단식 갖고 업무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난 10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국제협력 지원단 창단식을 가졌다.

도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501명의 원어민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관리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단한 국제협력 지원단은 초등 60명, 중등 60명 총120명으로 구성됐다.

교장, 교감, 전문직, 해외유학을 마친 교사 및 현장의 우수 교사로 구성된 국제협력지원단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배치되어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도록 돕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작·공급함으로써 경기도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원어민들이 안심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지원단은 한국인 협력 교사가 원어민들의 모든 의사소통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어

민 관리 메뉴얼”을 제작하고, 원어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한국 문화 이해”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영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협동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게 되고, 쌍방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어민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원어민들의 채용 절차, 출입국 관리 법규, 원어민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원어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도 제작하여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501개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전 원어민들에게 한 학기 동안 1회씩 협력교사와 공개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실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협력수업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다.

원어민과의 효과적인 협력수업은 수업지도안 작성에서부터 많은 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국제협력 지원단 창단식을 가졌다.

구가 노력이 필요하므로 경기 영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수업 공개활동을 돕는 일도 국제협력

지원단에서 맡게 될 주요 활동 중 하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잉글리쉬 존 설치로 생활영어 실력 ‘쑥쑥’

## 창수초등학교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한창



창수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지정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농촌학생의 자긍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창수초등학교(교장 문천희)가 경기도교육청 지정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시범학교(2005.3.1~2007.2.28)로 농촌학생의 자긍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창수초등학교는 전교생 1인1자격증 따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와 영어, 한자 자격증 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를 칭찬 및 격려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특기적성반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도농간 협력 격차해소를 위해 가정과 연계한 학력향상 방안으

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천희 창수초등학교 교장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으로 1인1자격증 취득하여 자신감과 애교심을 생성되고 특기적성반 운영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으로 도시와의 격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교육을 위한 ‘잉글리쉬 존’을 설치하여 5개의 생활영어 체험코너를 신설하여 운영중으로 여러학교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전교과 기본영어 사용기와 공통영어와 학년별 필수 영어 선정지도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운공상의

### 미국어따라하기

11. 그가 언제 진급했어요?

When has he promoted?

웬해스히프로못?

6개월 전으로 생각하는데요.

I thing six months ago.

아이딩, 씹스먼스서고

12. 미스 김 잘 있어요?

Is Miss Kim okay?

이스미스김 오케이?

아니요, 감기 걸렸어요.

Now, She has a cold.

나우, 쉬해서코올.

13.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sir?

위캐나이 구워유,씨?

들어오면 제게 전화하라고 하세요.

Have him to call me when he comes in.

해브힘투콜미 웨히컴스인

14. 미세스 김 이신가요?

Is this Mrs.Kim?

이스디스 미세스 김?

아닌데요, 잘못 거셨는데요.

No, You have a wrong number.

노우, 유해브러롱넘버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 가족은 일심동체

우리 외할머니  
입원은 왜 하셨을까?  
당연히 아프셔서  
입원하셨겠지.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입원한 걸까?  
내 마음도 아파서  
입원했겠지.

왜  
내 마음은 아픈 거일까?  
할머니께서 아프셔서야.  
또,  
엄마의 마음도 아프시고  
아빠의 마음도 아프셔서  
내 마음도 따라  
같이 아픈가보다.

그래서  
내 마음도 아파  
입원한 거야.



박 하 은 학생명예기자  
축성초등학교 6년